



1, 4, 5 IFEZ 시민 소통 보고회 모습 2 이원재 IFEZ 청장이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IFEZ, 2030년까지 미래비전 발표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서비스산업 허브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별 특색 있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0년 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또 고용인원 2만여명을 창출하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K-바이오를 이끌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개념 복합리조트 중심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송도컨벤시아 3단계 추진, 세계적 패션대학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확장 등 쇼핑·패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MICE·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도약한다. 송도 둘레길 조성, 문화 플랫폼 조성, 고품격 경관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활성화 등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IFEZ 미래발전 방향 시민소통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30년까지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IFEZ 발전자문위원회, 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유튜브 현장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소통 보고회는 IFEZ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이후 17년 동안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새로운 개발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차별화된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3 이원재 청장이 'IFEZ 미래 발전 방향'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4

5

실제로 IFEZ는 지금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28억 달러(신고기준)로 전국 7곳 경제자유구역(FEZ) 총액(183억 달러)의 7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투자유치의 롤 모델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 유치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 마련 및 첨단 산업 유치 등의 성과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정책도 '개발·투자유치'에서 '국내의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등 내·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 혁신성장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 구축, 국제적인 관광·물류 도시 구축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 선도,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 등을 설정했다.

이를 실행할 미래 발전 방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라는 비전 아래 ▲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 서비스산업 허브 ▲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등 4개 전략과 1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IFEZ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 앞에서 밝힌 실행과제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IFEZ가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고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nnovative Growing City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글로벌 신성장 도시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